

교회 목표

- 1. 천국일꾼을 키우자
- 2. 우리 세대에 민족 복음화를 이룩하자
- 3.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간 중헌

발행인 : 신성종
편집인 : 윤명식
편집국장 : 손경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헌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300 FAX :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1992년도 목회 지침 표어: 민족을 위한 제사장 교회가 되자 주제성구: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14:23)

◆세계선교주일 메시지◆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는 오늘 전국 교회가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 끝까지의 선교’를 특별히 온 교회가 기억하면서 이 대명령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선교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외 선교, 국내 전도 이렇게 쉽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국내는 물론 국외에 전해야 하는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의 대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선교를 ‘미션’(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의 ‘미시오’(missio)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임무를 주어 보내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 분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그 사랑, 즉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가 주님의 재림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광역적인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아직도 복음을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계에 나가 활동하고 있는 개신교 선교사들은 137,000명, 그 중 한국 선교사들은 1,700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5,000여 교회에서 210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 51개국에 330명(사모 60명 포함)의 선교사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는 올해 1월 현재 10개국에 19명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아시아 지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광활한 몫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2퍼센트 미만입니다. 바로 이 아시아 대륙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선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로서의 표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로서 말씀대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통해 눈 먼 자들이, 눌린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또 선교를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교회는 부흥이 되고,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면류관과 축복이 넘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

연속 기도 활활 타 올라

15일부터 연속 기도회 실시 교회 부흥과 개혁, 하나님께 기도해야

교회 부흥을 위한 24시간 연속 기도회의 타오르는 불길이 충청인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남내 전용기도실에서 시작된 24시간 연속 기도회는 교역자로부터 장로, 안수집사, 남녀 서리집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임을 절감하며 모든 중헌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이 불길은 권사들의 연속 기도 운동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은 12가지 기도 제목을 앞에 놓고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금주의 기도 제목◆

1. 우리 교회에 말씀과 기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원로목사와 당회장 및 교역자들에게 영력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3. 당회를 비롯하여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4.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올해 안에 교인 배가 운동이 실현되게 하소서.
6. 전 교인이 말씀과 기도로 민족 복음화에 힘쓰게 하소서.
7.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소서.
8. 해외 선교사들의 복음 사역이 열매맺게 하소서.
9.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및 학문이 안정되게 하소서.
10. 금번 장로 투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택되게 하소서.
11. 사랑의 집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소서.
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세계 선교 주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선교주일로 지킨다.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몇 가지 실행 사항을 살펴보면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이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교우들의 결단이 새로워야 하겠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서만수(인도네시아), 육호기(독일), 이준교(애굽), 유재일(칠레), 김주경(이스라엘), 안석렬(수리남), 유병세(일본), 박행렬·장부

용(서사모아), 선우형식·장원기·조재선·김탁균·김귀자·권혜경·조경련·배은희(파키스탄), 구리하라 가즈요시(일본), 김은태(홍콩) 선교사 등이다.

이들은 원주민 선교를 비롯하여, 교포 선교, 그리고 의료 활동을 통한 간접 선교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언어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다른 이방 지대에서 땀흘려 선교 사역을 감당하

고 있는 선교사 및 그 가족들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기도와 선교 후원회비를 통한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총회 선교부에 선교 헌금 전달

우리 교회는 교단적 차원의 선교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1월 23일 총회 선교부에 선교 헌금 3백만원을 전달하였다.

(선교사별 협력부서)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남선우 장로, 지도 김항수 목사)는 교회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위한 협력과 기도를 위해 아래와같이 각 교회학교와 교구를 연계하도록 결정하였다.

선교사	선교지	협력교회학교	협력교구
서만수	인도네시아	초등1부, 청년2부, 영어교육부	1, 11
유병세, 구리하라	일본	초등2부, 장년4부, 일어교육부	2, 국제
육호기	독일	초등3부, 장년1부	3, 13
이준교	애굽	초등4부, 장년2부	4, 14
유재일	칠레	초등6부, 청년3부	5
김주경	이스라엘	중등1부, 소망부, 사랑부	6, 15
안석렬	수리남	중등2부, 새가정부, 세례부	7, 16
박행렬, 장부용	서사모아	중등3부, 새가족부, 초등5부, 장년3부	8, 17
선우형식(팀장)	파키스탄	청년1부, 에바다부, 고등부	9
김은태	홍콩	대학부, 영아부, 유치부, 탁아부	10, 12



충현강단

신성종 목사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3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계3:1~13)

1 사데 교회에 보낸 편지

사데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대형화 되어가는 교회들이 자칫하면 사데 교회와 같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수 교단의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3:1)

사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일곱 가지 역사를 행하십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삼과 땅의 숫자 사를 합친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냐 함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가지시고 그 손에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가지신 예수님은 바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계3:1)

사데 교회는 크고,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번성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도 사데 교회같이 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데 교회는 사데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루디아의 수도였습니다. 사데 지역은 섬유 산업과 보석 산업으로 유명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명했을 뿐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라는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성이 꽤 있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사데 교회가 이처럼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사데 교회는 거둔다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거둔다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또한 사데 교회는 사해처럼 자기 것을 나누어줄 줄 모르는 교회였습니다. 갈릴리바다는 요단강물이 흘러들어오기도 하지만 또한 그 바다에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바다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 고기와 해초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해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줄 줄 모르는 바다이고, 갈릴리바다는 받기도 하지만 부채질해 나누어주는 바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들 가운데도 갈릴리바다와 같은 신자와 사해바다와 같은 신자가 있고, 교회에도 갈릴리바다와 같은 교회와 사해바다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갈릴리바다와 같은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부지런히 나누어주고 바칠 것은 부지런히 바칩니다. 갈릴리바다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나누어주고, 선교사를 보내고 구제 활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사데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는 사해바다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누어줄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데 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였고 엄숙한 예배 의식을 가진 교회였으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없었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행사 중심의 교회는 죽게 마련입니다. 행사나 예배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주님을 따르며 충성해야

새 이름 받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사데 교회는 죽은 교회, 즉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행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계3:2)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책망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일깨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3:3) 주님께서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 마칠때 때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계3:2)

사데 교회는 또한 그 행위가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그들의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데 교회는 앞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외척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 교회가 사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워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3:3)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돌아보아 회개하는 것이 사데 교회가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3:4)

마치 소들과 고모라성이 멸망될 당시에도 못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듯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예외적인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사데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옷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나 어머니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

하니십니다.

“불지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계3:8)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리”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의 사정이나 고민을 모두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말은 교인들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였고 교인들의 사회적 지위나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었으며 재능이 많은 것도 아닌, 인간적으로 별볼일 없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었습니다. 우리들은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 없는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도의 문과 선교의 문과 하늘 나라에 가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3: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지식을, 어떤 자에게는 지혜를, 어떤 자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자에게는 방언을, 어떤 자에게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3:12)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데에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이름이란 새로운 성품, 새로운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 이름을 가지고 살아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선조들처럼 새 이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셨습니다.

2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로부터 칭찬 받은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좌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계3:7)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문은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지옥 문은 예수님만이 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남 아 시 아 권

◆인도네시아

1. 선교사:서만수 선교사
2. 파송:1971. 9. 9
3. 사역:자카르타한인교회에서 목회 중이다. 문서를 통한 원주민 선교와 서부 뉴기니아(이리안자야) 지역 선교에 주력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단과 교류하고 있다. 군단위까지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기독교 대학(5년제)을 설립하였다. 50여명의 학생을 모집하여 2년 경과 실적 참조 후 정식 허가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4. 기도제목: 개척된 60여개의 원주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한국 선교사의 수가 파송을 위하여

◆일본

1. 선교사: 유병세 ·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
2. 파송: 유병세 선교사:1976. 4. 3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1991. 4. 14
3. 사역:유병세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한방 치료를 하면서 영혼 구원에 노력하고 있다.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을 향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리하라 가즈요시 선교사는 선교 본부와 연락을 잘 유지하면서 사역하고 있다.
4. 기도제목: · 우상 타파와 일본의 복음화를 위하여

유럽 권

◆독일

1. 선교사:육호기 선교사
2. 파송:1976. 6. 18
3. 사역:비스바덴, 하나우, 비르츠부르크한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포 전도 및 독일인 전도에 주력하고 있다. 성전 수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산권 선교의 차원에서 소련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파부병약을 구입하여 보냈다. 특히 소련어성경과 터키어성경을 배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4. 기도제목: · 공산권 선교를 잘 감당할

●세계선교주일 특집●

세계 선교는 우리가

“세계를 교구로 삼고”

수 있도록 · 성전 수리를 위하여

아 프 리 카 권

◆애굽

1. 선교사:이준교 선교사
2. 파송:1979. 10. 31
3. 사역:카이로한인교회에서 목회 중이다. 애굽복음신학교에서 교회성장학을 강의하며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현지 사역자들과 협력하여 교회를 개척하며 한인교회, 지교회, 개척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현지인교회, 특히 농촌교회를 순회하면서 각종 수양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량이 필요하다. 수단인 난민들을 상대로 의료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4. 기도제목: ·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선자가 되도록 · 카이로한인교회와 개척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 애굽신학교를 위하여

◆이스라엘

1. 선교사:김주경 선교사
2. 파송:1984. 7. 2
3. 사역:예루살렘한인교회에서 목회 중이다. 현지 아랍인 선교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성지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성지 순례자들을 안내, 통역하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기도제목: · 현지인 목회자 양상을 위하여 · 다른 나라의 유대인 선교 기관과 밀

접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 선교 기지 구축을 위하여

아 메 리 카 권

◆칠레

1. 선교사:유재일 선교사
2. 파송:1980. 11. 27
3. 사역:10년 10개월 동안 교회 개척과 갱신에 주력해왔다. 선교본부에 인식년을 청원하여 유 선교사가 담임하던 교회는 현재 김종길 목사가 임시 당회장직을 맡고 있다.
4. 기도제목: · 선교부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선교후원회의 조직을 위하여 · 선교사 충원을 위하여 · 칠레 장로교 총회와의 공동사업인 찬송가 제작 및 신학교 건축을 위하여

◆수리남

1. 선교사:안석렬 선교사
2. 파송:1987. 2. 22
3. 사역: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원주민교회를 개척하고 있다. 일간지에 성경 구절을 실은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전도 효과를 더욱 높이고 있다. 선교를 희망하는 인도인, 인도네시아인, 중국인들과 협력하여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4. 기도제목: · 언어(영어와 화란어) 훈련을 위하여 · 장기 체류 허가를 위하여

◆서사모아

1. 선교사:박행렬 · 장부웅 선교사

2. 파송:1989. 1. 29

3. 사역:극심한 열대 기후로 초창기에는 선교 활동이 힘들었으나 이제는 많이 적응되었다. 언어도 잘 훈련되어 서사모아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내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다. 미국령에 거주하는 중국내 한인 교포에게 서적을 전달하였다.

4. 기도제목: ·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서사모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북 아 시 아 권

◆파키스탄

1. 선교사:선우형식 · 장원기 · 조재선 · 김탁균 · 김귀자 · 천혜경 · 조경련 · 배은희 선교사
2. 파송:1989. 11. 26
3. 사역:91년 8월부터 '선한 사마리아 병원'에서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하여 매일 50~8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료 선교와 더불어 교회 개척도 계획 중에 있다. 11월경에는 산부인과와 안과를 개설하고 간호사를 보충하여 사역을 더욱 확대할 전망이다.
4. 기도제목: · 의사소통과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 비자 문제가 해결되도록 · 모슬렘 사회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홍콩

1. 선교사:김은태 선교사
2. 파송:1991. 6. 16
3. 사역:91년 11월 둘째 주부터 매주 선교 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매주 장년 45명, 중고등부 9명, 어린이 25명이 모이고 있다.
4. 기도제목: ·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장로칼럼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남선우 장로
(세계선교위원장)

교회는 자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그 어느 기관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맡은 역할과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교회론적으로 대답한다면 교회의 기능은 예배와 전교와 봉사, 그리고 교육, 전도, 선교, 구제 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그의 유언적인 대명령(마28:19)을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사명 중에 교육과 전도와 선교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선교와 전도는 교육의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모든 분부하신 계명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 없이는 그 교육의 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단순한 전도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세아를 선교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다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양자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전자는 사정거리가 먼 대륙간의 전략적 무기라면 후자는 국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술적 무기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국지 전술뿐 아니라 선교라는 전 계구전략 전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배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내 이웃, 나의 세아에 있는 내 동포를 구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은 전 세계를 내다보시며 그 가운데 모든 택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주님의 선교전략적 관심도 함께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올해의 선교주일을 감격스럽게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에 대하여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

시는 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선교에 두신 비중만큼의 비중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 비중은 주님께에서 거의 유연적입니다. 주님은 오직 이 선교의 대명령을 내려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적, 물적, 재정적인 여러 측면에서 초대 교회에서처럼 선교적 부흥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더욱 밖으로 쏟되 구원의 진리를 전략적으로 수출하는 데 전력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하늘의 보이지 않는 은총과 축복을 넘쳐도록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성도 개인도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세계선교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선교 지역권 별로 자체 담당 위원(장로)의 주도 아래 간사의 협력으로 많은 실행위원과 기도위원들을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해당 선교 지역과 또 그 지역 안의 파송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선교는 내가” 담당해야 합니다. 모든 충현의 성도들은 한 분도 선교 사역의 관중이 아닌 선교의 주역으로서 지구촌의 새 시대를 복음으로 여는 일에 전력하게 되길 원합니다.

다름호 칼럼은 김은호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

(세계선교위원회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마음 깊이 새기고 기도로 후원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도제목을 발표하였다.)

1. 세계 선교를 위한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에게 강하게 불어 온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추수를 감당할 선교의 일꾼들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며, 전 세계에서 사역 중인 1,700명의 한국 선교사들과 330명의 우리 교단 선교사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소서.
2. 현재 10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19명의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들이 더욱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알찬 사역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소서.
3. 철의 장막 속에서 역사의 여명을 기다리는 2천만 북한 동포들이 속히 우리와 복음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4. 아시아와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복음화시키는 비전과 열정이 우리 교회에 충하여 세계 복음화 운동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5. 충현의 온 성도들이 땅 끝까지의 선교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6. 새움받은 충현의 각 선교특별 실행위원과 기도위원들이 선교 지역과 선교사를 위해 비전을 품고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소서.
7. 충현교회 세계선교연구원이 올해에는 더욱 내실을 기하여 내일의 선교를 담당할 주역이 되는 유능한 평신도 선교사들을 알차게 교육하게 하소서.

신성종 목사 선교 여행

성장 모델 교회 탐방 차 2월 3일 출국

당회장 신성종牧사는 성장하는 교회 탐방을 위하여 오는 2월 3일 오후 3시 출국한다.

신 목사는 미국의 수정교회, 영락교회, 동양선교교회와 시카고에

있는 세계적인 교회를 둘러보고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마쳐질 수 있도록 온 교회는 기도해야 하겠다.

92년 첫 세례식 거행

92년 들어 첫 세례식이 지난 24일 거행되었다.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집례로 거행된 이 세례식에서 138명이 세례를, 28명이 유아세례를, 175명이 학습을 받았으며, 59명이 입교하고, 7명이 개종하였다.

교사 모집

교회는 장애 아동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할 유아교사를 모집합니다.

- 자격: 유아교육전공, 전문대 졸업 이상
- 인원: 약간명 · 기한: 1992. 1. 31
- 문의: 장애아동조기교육원 (562-0548)

예배위원회 조직

◆예배부

부장: 김은호 지도: 윤용규 1부 차장: 김경태 2부 차장: 김인관 3부 차장: 이하영 4부 차장: 박인건 찬양예배차장: 김여순 수요일부 차장: 최만수 수요일부 차장: 오석부 금요일부 차장: 한경선 봉사요원: 전용해, 신명성, 엄기정, 손진성, 박노택, 권철, 김은철

◆성례부

부장: 김방진 지도: 최순복 세례부 차장: 최기홍 성찬부 차장: 백죽심 성찬준비위원: 필기복, 조희순, 김옥래, 이종숙, 조숙, 김순복, 전순자, 우순성, 반정현, 민진식, 임옥환, 이석정, 남수현, 김상순, 박우순, 김순이, 김남진, 변순복, 임순철, 임봉옥, 최미정, 심영순, 김준자, 김석운, 신군자, 전부덕, 이해수, 정수정, 정명섭, 심명희, 현계식, 유순녀, 김순동, 민순애, 김종숙, 석해자, 유영희, 이명자, 2

◆안내부

부장: 문홍구 지도: 현정남 차장: 최운덕 1부 반장: 김구형 반원: 안희정, 권오영, 최경희, 윤순 2부 1층 반장: 김계희 반원: 해판전, 권

순탁, 이중현, 김연희, 백재홍, 남용철, 정은숙, 김필숙, 오달녀, 배은희, 임경순 2부 2층 반장: 박관섭 반원: 엄균영, 안노수, 김상길, 오동진, 안선자, 이명옥 3부 1층 반장: 윤재선 반원: 김원봉, 김선구, 변영민, 김태연, 박옥림, 김남석, 정영래, 남양희, 라영실, 최영애, 박옥순, 최순해 3부 2층 반장: 왕진숙 반원: 박종태, 김광근, 김남재, 김인숙, 오혜숙, 이옥자, 안옥림, 이정숙, 최정옥, 윤희순 4부 1층 반장: 엄숙현 반원: 정정길, 최종배, 고금자, 김영구, 태명자, 정민자, 황순주 4부 2층 반장: 유은희 반원: 황인주, 변금순, 구인숙

◆영어예배부

부장: 김천재 차장: 이부성 안내위원: 장충근, 정홍관, 최서현, 조정백, 김정찬, 박정만, 김순, 남정애, 김정애, 김석영, 유효송

◆일어예배부

부장: 송환창 지도: 심길용 차장: 최수애 안내위원: 김재홍, 이진국, 구덕임, 박정아, 이경자, 유영자

원고모집

계간충현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담은 시, 수필, 간증을 기다립니다.

· 제출처: 선교관 407호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을 붙잡고 92년도 한 해를 전도에 주력코자 하는 우리 교회에서 연초부터 전도에 남다른 의욕과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부서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학원전도회는 전도위원회 산하 8개 직능전도부 중 하나로써 현재 김단용 집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 전도회는 지난 1월 7일 교사 수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특강을 갖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

▶기관탐방▶

학원 복음화의 꿈을 안고

-학원전도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현직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특수 전도회이다. 따라서 회원들은 중등부나 고등부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개최하는 특강에 강사로 초청되어 진학 상담 및 학습 상담을 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원전도회의 본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각자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으로 지도하며, 여건이 주어지면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예

를 들면 지난 성탄절을 즈음하여 믿지 않는 학교에서 성탄절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전달한 일도 있었으며, 교사 신우회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금년에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수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믿지 않는 동료 교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를 들면 지난 성탄절을 즈음하여 믿지 않는 학교에서 성탄절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 이름으로 보조금을 전달한 일도 있었으며, 교사 신우회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복음 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금년에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 수련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믿지 않는 동료 교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충현교회의 등록 교인 가운데 초·중·고 교사들은, 모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새해를 시작한 학원전도회로 집결하여 학원 복음화의 선두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충현프리즘

◎...우리 교회는 매주일 타악부가 운영되고 있다.

젊은 부부들의 경건한 예배 참석을 위하여 뜻깊은 어린아이로부터 만3세 미만의 유아들을

예배 시간에 맞춰 타악부 교사들에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예배 분위기를 흐트러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부들은 타악부를 적극 활용하여 강단

의 메시지가 신선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주일 동문(교육관 입구) 경비실 앞뒤에 많은 박스들이 놓여 있다. 물론 주일에 먹을 간식 등의 보따리인데, 이미 토요일에 구

매 절차를 끝내고, 주일에 배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보기에 좋지 않다. 관련 각 부서의 책임자들은 토요일에 모든 구매 행위를 끝냈으면 한다. 주일 성수 차원에서 이런 일부터 시정해 나가자.

카메라 쏠점



▲선교주일을 맞아 23일 총회 선교부에 선교헌금을 전달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있었던 중등1,2,3부 겨울 수양회